



UNDP 몽고회의를 다녀와서

붉은 도시에서의 HIV 미팅

12월 13,14일 몽고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UNDP HIV와 개발에 관한 동북아 에이즈사업회의가 열려 본회 이사는 과장이 다녀왔다.



이상은 본회 사업과장

12월 12일 저녁 늦게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게이트통보를 통해 나가는 순간 입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하얀 입김이 펄펄 쏟아져 나왔다. 바깥기온은 영하 24도라고 한다. 울란바토르(붉은 도시라는 뜻)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몽고에 도착했다.



정기스 맥주를 마시며 동포의 정 나눠

몽고, 중국, 북한, 한국과 각 지역 UNDP 사무소에서 총 22명의 관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UNDP 한국사무소 이옥순씨,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김훈수 국제협력부장, 적십자사 맹광호 자문위원과 필자가, 북한에서는 북한 에이즈바이러스연구소 소장인 박선생님과 보건부 위생검사국 부위원장 최선생님, 보건부 관리인 김선생님이 참관하여서 양국의 에이즈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회포도 풀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의 맥주보다 순한 그곳의 정기스 맥주로 복을 축이며 양국의 경제현황과 새로운 생활양식, 평양과 서울의 거리 풍경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울란바토르의

기나긴 밤을 밝혔다.

숙소는 몽고 대통령 궁이 보이는 울란바토르 호텔. 북한 참가자들과 복도를 마주보고 방을 배정받아 방을 찾아가 얘기도 나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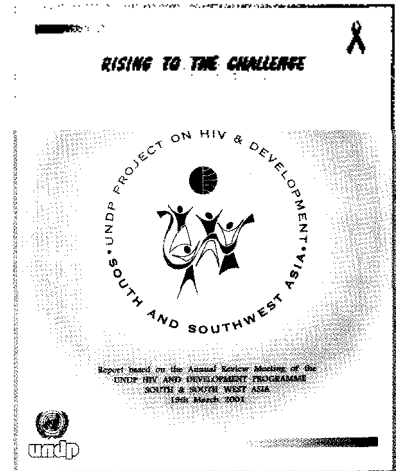
몽고의 주식은 양고기인데 노련내가 비위에 맞지 않고 보건부 위생검사국 부위원장 최선생님도 고기를 거의 드시지 못해서 내가 가져간 햇반과 컵라면, 고추장 등으로 아침을 함께 하였다. 최선생님은 남한의 튼튼 고추장이 맛있다고 고추장과 김만으로 밥 한 그릇을 거뜬히 비우셨다.

택시값이 우리 나라의 비스값 정도여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다녔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때문에 걸어다닐 처지도 아니었다. 대부분 가정용 난방 연료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석탄이라 거리에 3분만 있어도 목이 칼칼하였다. 몽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게르"라는 천막에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겨울에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가 타치면 인명과 동물 손실이 적잖이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순박해 보였고 거리에는 우리 나라 현대 자동차들이 즐비하다. 한국말을 약간은 하는 택시기사,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국의 대중가요로 몽고의 한국 열풍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에이즈 감염자 밖에 없지만 이곳도 에이즈 안전지대는 아니다. 성병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에이즈 감염자가 많은 중국과 한국으로의 노동자 이동도 많은 편이어서 위험요소가 많다.

성병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에이즈 감염도 상당히
중국과 한국으로의 노동자 이동도 많은 등 여러가지
위협요인이 있다.



북한에서는 값싼 진단시약 개발 위한 연구 진행중

회의 첫날 저녁 우리는 북녘 동포들과 몽고에서 가장 큰 식당인 "서울 레스토랑"에서 닭갈비와 비빔밥에 백주줄 한잔하였다. 북한 에이즈바이러스 연구소 박선생님은 WHO에서 연간 약 2만여명분의 진단시약을 지원받고 있지만 1년에 약 6만 명을 검사하는 실정이라서 나머지 부족분은 모두 수입한다고 하였다.

연구소에서는 현재 진단시약보다 훨씬 저렴한 진단시약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올해 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어서 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였다.

진단시약을 만드는 게 뭐 어렵냐는 나의 질문에 박선생님은 재비난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진단시약은 현재 북한의 자체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참새를 잡을 때는 총알로 잡아야지 미사일로 잡아서선 커다란 낭비입니다." 현재 진단시약이 너무 비싸다는 뜻이며 북한의 경제사정도 반영한 말일 것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기는 길보다 약간 더 걸렸다. 몽고 서울간 직항기 편이 많지 않아서 베이징을 경유하였다. 북한 참가자들도 베이징을 경유하여 평양에 돌아갔는데 우리는 북경 공항 라운지에서 언제가 될지 모를 통일 날을 기약하며 이별의 눈물을 뿌렸다. 정이 많은 김선생님은 우리를 부둥켜안으며 내내 아쉬운 표정을 지어셨고, 다음회의는 평양에서 개최되기를 내심 바라며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회의 브리핑

에이즈를 사회, 경제, 문화적인 시각으로

이번 회의의 목적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동북아시아 "HIV와 개발"에 관한 제1단계 사업을 평가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될 제2단계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다. 중국, 몽고, 대한민국, 북한을 프로젝트 파트너로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인구의 1/4이 밀집되어 이곳 감염자율의 조그마한 증가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 지역 국가들은 모두 0.1% 미만의 감염자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대국인 중국의 경우 0.1% 미만이라도 이미 감염자수가 15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이즈 대처능력과 경향이 부족하고 에이즈와 성문제, 콘돔사용 등에 대한 무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며,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몽고와 중국에서는 역학 감시 체계가 약하며 검사기술과 진단시약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2단계 사업에서는 서남아시아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의 "HIV와 개발" 사업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Partner 참가국이 14개국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450만 불로 늘어난다.

제2단계 사업의 기본 목적은 첫째, 에이즈와 사회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조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에이즈를 동북아시아 개발의 주요문제로 인식하고, 둘째, 성차별, 생계문제, 이주문제 등 에이즈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역량을 구축하며, 셋째, 에이즈 감염자/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에이즈를 단지 질병으로만 한정시키는 시각에서 나아가 가난과 성차별 등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UNDP의 기본 시각이고 UNDP 에이즈사업의 기본 틀이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대응도 보건의료적인 대응차원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대응을 강조한다.